

태국서 전남관광 주춧돌...“전세기 뜬다”

김영록 지사, 설명회...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협약

태국 관광객 ‘역대 최대’ 1만3000명 유치 목표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가 수도 방콕에서 역대 최대인 현지 관광객 1만3000여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방콕 킬트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와 언론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관광의 매력을 소개하고, ‘태국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협약을 통해 태국 관광객 대거 유치를 목표로 했다.

관광설명회에는 김영록 지사, 박인규 ㈜세운트래블 대표, 벤야와 쾨앗 다스티 플랜플랜 투어 대표, 김병진

㈜제주항공 방콕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유다석 수파손 태국관광청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한국과 태국 두 나라 간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양해각서 이후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항공사·여행업계가 동남아 최대 관광시장인 태국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

깊다.

협약에 따라 ㈜세운트래블과 한국 송출 특화 여행사 플랜플랜은 무안국제공항 전세기와 타 공항 연계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내 사후면세점 3곳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세기 첫 편은 오는 30일 무안공항에 도착하고, 3월 24일까지 운항을 계속한다. 이후 전세기 추가 운항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14왕차 운항으로 3000여 명의 관광객과 타 공항 정기편을 이용하는 전남 여행상품으로 1만여 명의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역대 태국 관광객 전남 방문 규모로는 최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와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해외 관광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의미 있는 업무협약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동남아 국가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와 공동으로 전남 관광상품 마케팅을 추진해 5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박종배 기자

“반도체·AI 산업 세계적 흐름과 일치”

강기정 시장, 세계 가전·IT 전시회 CES 방문 성과 설명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가전·IT 전시회) 2023에 다녀온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이번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민선 8기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이 세계적 산업 트렌드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메인드인 광주를 내걸고 광주 세일즈 총감독으로서 미국 CES와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으로 광주지역 8개 기업과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의 만족과 자긍심은 매우 컸다”며 “이 과정에서 CES 혁신기업인 ㈜솔과는 AI 바이오 연구소 설립 투자로, AI 중심도시 광

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브랜드 홍보관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텍프런티어가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이스포츠 전문채널 ESTV와 세계 이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구글 등을 방문, 광주가 진정한 AI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AI 2단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기약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 같은 확실한 성과들과 더불어 광주시뿐만 아니라 광주방문단으로 함께 한 산·관·학, 민간과 공공 분야, 전방위를 아우르는 총출발 광주발전 사다리를 구축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조일상 기자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광주시, 50억 규모 결성

광주시가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슬파트너스와 함께 1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호남·제주권 결성총회를 열고 지역창업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호남·제주 권역으로 선정되면서 5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한국모태펀드가 38억5000만원, 광주시가 11억원, 한국엔젤투자협회가 2500만원, 엔슬파트너스가 2500만 원을 각각 출자했다.

올해부터 투자 4년, 회수 4년 등 모두 8년 간 운용되며 주목적 투자 대상은 호남·제주 지역 엔젤투자를 받은 창업기업과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징검다리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57), 한국엔젤투자협회 또는 엔슬파트너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이외에도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벤처펀드 등 7개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또 5000억 원 펀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 주도형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김영록 지사, 태국서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협약 태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16일(현지시간) 방콕 킬트호텔에서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가축분뇨로 가스·전기생산...담양·화순에 첫 시설 구축

전남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악취 저감 351억원 투입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올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해 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 환경부가 지자체 가축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적은 있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무했다.

전남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 등 적정처리 확대를 위해 올해 농가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351억원

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한해 총 사업비는 12개 사업 351억원으로, 국비 6개 사업 197억원과 도비 6개 사업 154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처리 개선,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화순, 해남, 영암, 영광군에 94억원을 지원한다.

주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박종배 기자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실무협의체 꾸린다

공군·국립공원공단 TF 2차 회의...이달 중 구성키로

광주시는 16일 무등산 정상을 조속히 시민 품으로 돌려 주기 위한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 광주시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상시개방 세부 협의서 실무협의체 구성, 신속한 군부대 이전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이달 중 광주시·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

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세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중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의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국방부·공군본부·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해 다음달에는 상시개방 탐방로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군부대 철착이설 등을 완료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배 기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5년 연속 ‘전국 최다’

전남도, 2023년 9곳 선정 사업비 88억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로, 향후 전남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곡성 ‘동막’, 보성 ‘다도락’, 보향다원, 강진 ‘영동농장’, 해남 ‘땅끝야베스유

기쌀’, ‘정윤’, 영암 ‘월출산농협’, 무안 ‘해아’, 함평 ‘백련유기’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는 전국 총 사업비(169억원)의 52%를 차지하는 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50%·자부담 20%로 분담해 추진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1곳당 평균 10억원(최대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박종배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010-6265-0057

TALK